Office of Faith and Culture
Archdiocese of Hartford

하트포드 대교구 신앙과 문화 위원회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

(에페소서 4장 4~5절)

우리의 대교구 성직자들은 다양한 문화가 같은 세례와 성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환대 (hospitality)의 첫번째 모습입니다.

Arturo M. Iriarte
Director

134 Farmington Av. Hartford Ct. 06105
860-541-6491 ext. 3128
a.iriarte@aohct.org
www.faithandculturect.org

비전:

하트포드 대교구 산하의 신앙과 문화 위원회 (OFC: Office of Faith and Culture)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와의 교감을 구함에 있어 사제와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 비길데 없는 선물은 각 문화에 속한 개개인에 주어져 몸과 피가 될 것입니다. 신앙과 문화 위원회는 이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마태복음 28장 16~20절)

우리의 다양한 문화는 그리스도 아래서 공통의 세례와 하나의 믿음, 그리고 하나의 성찬을 공유합니다.

OFC는 모든 교구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많은 얼굴들"과 우리 모두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하나의 믿음을 구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교구 공동체에는 유럽계 미국인, 가나인, 브라질인, 하이티인, 한국인, 베트남인, 스페인계 라티노, 포르투갈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필리핀인 등이 포함됩니다.

사명:

신앙과 문화 위원회는 믿음안에서의 교감과 정체성을 촉진합니다. 모든 문화적 표현에 대한 다양성을 환영하고, 문화간 관계를 강화하며, 사제를 지원하고, 다양성 프로그램에서의 융합을 제공하며, 청소년 복음화 과정이 중요한 교육, 교구지도력, 다문화 행사를 통해 교회의 가르침을 증진합니다.

문화간 교류

우리는 신앙생활내 문화간 관계에서 역량을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믿음과 문화간 관계, 사회정의 인식, 결혼 장려, 사제직에 대한 소명함양, 종교생활, 청소년 복음화등의 우선순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교들과 협력하고 사제들을 지원합니다.

교회 회의:

OFC는 새로운 미국 문화 환경의 근본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하트포드 대교구 교회 회의 결론 보고서 공표에 따라 문화간 만남을 증진합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오늘날 미국에서 가톨릭 신자가 되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차이를 초월하는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진리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강화해야만 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회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이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